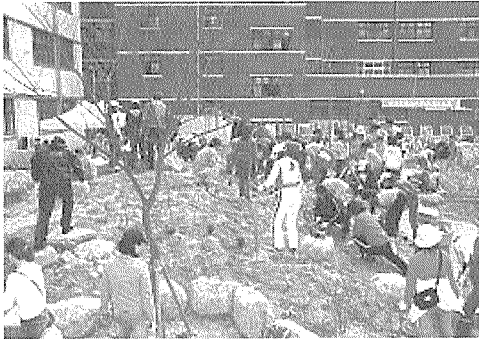


## 경기도, 경기녹지재단 “우리꽃의 힘”



우리꽃의 힘은 강했다. 버려진 학교 뒷산이 우리꽃동산으로, 군부대 도로가 예쁜 꽃길로, 아파트 자투리땅이 자연체험학습장으로 변신했다.

생활주변 공간을 찾아 순수 우리꽃으로 아름다운 화단을 만드는 경기녹지재단의 ‘녹색마을 선포식 및 우리꽃 화단 조성’ 행사가 도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40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경기녹지재단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아파트 3곳(용인 건영캐스빌, 남양주 중흥S클래스, 안산 그린빌8단지), 초등학교 2곳(포천추산, 화성 팔탄), 군부대(파주 1사단 전차대대) 등 총 6곳, 1천 3백평의 공간에 2천여명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라져 가는 우리꽃을 심었다.

이 기간 동안 심어진 우리꽃은 20여종 30,000본에 달한다. 금낭화, 섬기린초, 하늘매발톱꽃, 붓꽃, 초롱꽃, 술패랭이꽃, 범부채, 벌개미취, 두메부추, 큰평의비름, 비비추, 용머리 등 이름만 들어도 예쁜 순수 우리꽃이다.

함께 심은 400여 그루의 나무도 산수국, 땃강나무, 병아리꽃나무, 좁조팝나무 등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토종나무이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 주부, 어린이, 교사, 군인, 공무원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층의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 행사마다 녹색마을, 녹색학교, 녹색부대 등의 선포식을 가져 지역주민들이 함께 녹지를 조성하고 아름답게 가꿀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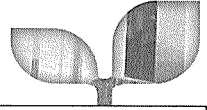
## 경남도, 기록물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기관표창



행정자치부(국가기록원)가 실시한 2005년도 기록물관리 평가결과 경상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기록물관리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기구(자료관) 운영, 기록물 관리 혁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록물 관리, 기록물 생산 의무 준수, 기록물 전산화, 기록물 서고 관리 등 7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 실시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기구 운영, 도면서가 및 특수기록물 서가 비치, 방충·항균시설 구비 등 최적의 문서보존 환경정



비 등 기록물관리 기반구축의 노력, 기록물관리 법령에 의거한 기록물 관리제도의 정착, 기록물관리의 인식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를 통한 기록관의 혁신의지 및 노력, 특히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전산입력 등 기록물 전산화 추진실적의 유공을 인정받아 전국 708개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기록정보의 자원화 및 행정정보 공개 수요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등 기록관리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 광주시,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장폐기물의 적극적인 관리

광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 작성하게 되는 종이 인계인수서를 전산화하여 배출, 운반, 처리과정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현재 운영자인 한국환경자원공사 전남지사의 협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종이인계서 작성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대장이 자동 생성되어 대장의 기록과 보존이 용이하고, 연간 폐기물처리 실적을 전산으로 각 자치구에 자동 제출하게 됨에 따라, 사용이익과 비용편익효과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 환경자원공사 전남지사와 각 자치구 사업장폐기물 담당자간 업무협의를 갖고 5월

중순 사업장폐기물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중 아직까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감량대상사업장은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안내했다.

아울러, 병원과 의원급 등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우선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사용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형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천연골재 채취로 파괴되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을 갖춘 순환골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2005년 1월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골재 재활용정보를 건설공사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건설폐기물정보시스템(건설폐기물관리시스템, <http://www.cwms.or.kr>)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대구시, 혁신우수사례, 타시도 벤치마킹 줄이어

대구시가 그동안 혁신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에 대하여「벤치마킹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타시도 공무원들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혁신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혁신체험단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시의 우수사례들을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혁신도시로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시본청과 구·군의 혁

신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패키지화하여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우수사례 패키지 노력의 성과로 지난 4월 19일 울산광역시청 공무원 혁신체험단 40여명이 대구시에 방문한데 이어 5월 2일에도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40여명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대구시를 방문하였다.

이번에 소개한 대구시의 우수사례는 대구시가 자랑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시민과 함께하는 수목원으로 조성한 사례' (05 환경부 전국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지역 선정, '05 대구경북 환경문화상 대상 수상)와 '거버넌스형 과학기술 정책 모델 추진사례', 북구청의 '지방세정업무처리 전자시스템 구축사례' (05 행자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그리고 수성구청의 '찾아가는 맞춤형 해민서비스' (05 행자부 주관 전국 혁신거점 지정)등이다.

대구를 방문한 타시도 공무원 혁신체험단원들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시의 혁신우수사례 패키지 프로그램이 타시도에 알려짐에 따라 인근 시도에서 대구시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향후에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부산, 환경개선 「공기가 맑아 졌어요!」

올 들어 부산의 대기와 수질 등 환경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2006년도 1분기 환경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지난해 1분기 평균 0.6ppm이었으나 올해



는 평균 0.5ppm으로, 이산화황은 지난해 0.008ppm에서 올해는 0.006ppm으로 각각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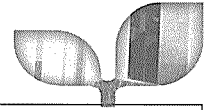
또 이산화질소는 0.027ppm에서 0.024ppm으로 오존은 0.024ppm에서 0.023ppm으로 각각 낮아졌다. 대기 중 중금속은 잦은 황사의 영향으로 납, 카드뮴, 망간, 철의 평균농도는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크롬과 구리, 니켈은 감소했다.

1분기 부산의 대기 중 납의 평균농도는 0.0758 $\mu\text{g}/\text{m}^3$ 으로 환경기준(0.5 $\mu\text{g}/\text{m}^3$ )에는 크게 못미쳤다. 1분기 부산에 내린 비의 산성도(pH)는 평균 4.8로 지난해 1분기의 평균 4.6보다 약해졌고 실질적인 산성비(pH 5.0이하)의 비율은 지난해 57%에서 올해는 45.7%로 개선됐다.

하천의 수질도 대체로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서낙동강은 지난해 평균 7.1ppm에서 올해는 4.7ppm, 북구 대천천은 3.2ppm에서 2.5ppm, 온천천은 7.7ppm에서 5.1ppm으로 개선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준설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동천은 23.1ppm에서 11.3ppm으로 수질이 크게 향상됐다. 연안바다의 수질은 지난해 1분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평균 1.5ppm이었으나 올해는 1.3ppm



으로 나아졌고 부산항내 수질은 평균 1.6ppm에서 1.2ppm으로, 해수욕장의 수질은 평균 1.7ppm에서 1.3ppm으로 각각 좋아졌다.

### 서울시, "청계천에 무공해 청정에너지가 흐른다"



세계적으로 환경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친환경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숲 안에 위치한 독도정수장 내에 240K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오는 7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모두 독도정수장 내에 설치되어 청계천에 공급되는 한강물을 끌어 올리는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유가급등 속에서 대체에너지 공급시설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공급원인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은 공공부문의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연간 3,800만원의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숲 안에 건설하게 될 태양광발전소는 이곳을 찾는 많은 어린이, 학생, 시민들에

게 공개하여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태양광발전소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공급은 90년대 초부터 국가에너지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고, 특히 1994년 기후변화협약 이후 태양광발전소 건설은 증가추세이며 현재 국내 태양광발전용량은 총 8,500 KW이다.

### 울산시, 환경지표중 '반딧불이' 보전·복원사업 추진

울산시는 시교육청(들꽃학습원), (주)세진중공업(회장 윤종국) 등과 공동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금 1억7백만원과 시비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07년까지 물과 공기를 비롯한 모든 환경이 청정한 지역에 서식하는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애반딧불이)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인공증식을 통한 반딧불이 서식밀도를 향상하기 위해 울주군 범서면 서사리 270번지 들꽃학습원내 60평 규모의 '반딧불이 생태체험관'을 오는 9월까지 조성한다.

보전 복원은 오는 8월 반딧불이 유충을 분양받아 배양 등을 거쳐 내년 6월, 반딧불이 생태체험관 및 지역 내 자연서식지에 연차적으로 방사한 후,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자연 서식지는 울산대공원, 상북면 석남사, 범서읍 천상본동·연동마을·척과마을 등 5개 지역을 계획하고 있다. ◀